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4 ~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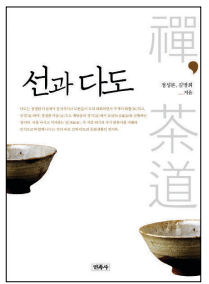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항적	조계종출판사
2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7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코	담앤북스
3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불광출판사	8	불교의 모든 것	곽철환	행성비
4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지안	웅화	9	항기로운 동다어, 깨달음의 화화라네	원학	김영사
5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10	자기에게 돌아오라	춘식	침묵의향기



다도, 차 앞에서 자신의 불성 보는 것

선과 다도

정성본, 김명희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5천원



“다선일여(茶禪一如), ‘선다일여(禪多一如)’, ‘꼭다거(喫茶去)’ 라는 말은 선과 차는 하나라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돌아야만 경지에서 차를 마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선 수행과 차 마시는 일을 어떻게 풀이 아닌 하나의 경지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은 강조한다.

책은 다도에 쓰이는 다양한 선구(禪句)를 풀이함으로써 선사상을 보여준다. 또한 익숙한 선문답이나 추사 김정희의 선다시(禪多詩)에 나타나는 선어들을 경전 등 여러 문헌을 참조해 구절들을 풀이하고 있어 어렵다고 생각되는 선사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특히 1부 끝에는 ‘수처작주(隨處作主),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진여, 여래, 무아 등 다도에 많이 쓰이는 선어들의 뜻을 이를 수록하여 평소 다도를 즐기는 독자들과의 공감을 해준다.

보여준다. 사물들이 제각각 선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다실을 살펴봄으로써 독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게 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단순히 도구로만 인식되던 사물들과 새롭게 관계 맺으며 창조적인 삶을 전개해 나 갈 수 있다.

요즘 각박한 삶에 지친 개인을 위로하기 위해 수많은 ‘힐링’ 요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의 삶 속에 깊이 다가가지 못한 채 일시적인 해결만 줄 뿐이어서 오히려 갈등을 낳아내고 있다. 바로 이때, <선과 다도>가 제시하는 다도생활의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도 역시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다도는 청정한 다실에서 선지식이나 도반들이 함께 대화하며 지혜와 인격을 나누면서 주객이 화합하고, 공경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살도를 행하는 일이다.

선불교적 관점에서 ‘다도’ 짚어

자기 본분사 지혜와 인격으로

나누는 것이 ‘선 과 다도’

2부에서는 선불교적인 관점에서 다도를 생활화 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도를 통해 자기 수행 및 자기 치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좌선과 명상과 같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선과 다도’의 또 다른 묘미는 다실의 구체적인 사물에서 선의 의미를 찾는다는 데 있다. “(다도에서) 기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청정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저자는 다구를 비롯하여 다실의 분위기를 꾸미는 다화, 다실에 걸 어두는 묵적 등에 깊은 의미를 생생하게

자각의 종교인 선불교에서는 스스로 선을 생활화하여 타인의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친다. 다도는 바로 이러한 선불교에서 선 생활의 한 부분으로 시작된 것이다. 책에 따르면 한 잔의 차와 마주하여 주객과 자타, 범성과 미추 등의 상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날 것을 조언하는 다도는 자유로운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얻게 하여 근본적인 자아힐링을 가능하게 해준다.

오랫동안 선과 다도를 연구해 온 두 저자가 내놓은 <선과 다도>는 값비싼 다도와 우차림 등 격식과 외형적인 것이 다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다도를 이해하고 진정한 다도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어 다도에 관한 좋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두려움 없는 사자처럼’ 살아가려면

늘 기쁜 마을 편지

지현 지음 | 성보문화재단 펴냄 | 1만8천원



“숲 속의 짐승 중에 사자를 겁내지 않는 것이 없으니 오직 사자만이 자유로이 활보한다. 저 지혜로운 사람이 몸은 작으나 그릇이 크나니 결코 양만 보고서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큰 몸에 살은 많이 찢으나 지혜가 없으면 무엇에 쓰랴. 저 비구 지혜 있어 훌륭하니 그가 바로 천상의 사나이다. 탐욕을 떠나 결박을 끊고 열반을 얻어 윤회하지 않으니 그는 저 마지막 육신으로 모든 악마를 항복시켰느니라. <잡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외도를 핑계로 타인을 업신여기는 제자들에게 설법하신 계승이다. 책은 저자인 지현 스님의 지상 설법으로, 대중이 삶을 여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불조의 말씀을 골라 읽고 그에 대한 의미와 부연 설명을 붙인 것이다.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면 명산, 물이 깊지 않아도 용이 살면 명천, 절이 높지 않아도 진정한 수행자가 살면 큰 절, 사람이 잘 생기지 않았어도 지혜와 덕이 있으면 대인이라고 합니다.”며 “누구든지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으로 큰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승의 구절처럼 탐욕을 떠나면,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어집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면 타인의 시선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성형수술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겁먹지 않는 사자처럼”이라고 서두의 부처님 말씀을 풀어준다. 부처님 말씀이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지만 책은 그 중에서도 대중이 아무에게도 겁먹지 않는 사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이야기들을 가려 뽑았다. 스님은 <사타니파타>에서부터 각종 대승경전 뿐만 아니라 선승들의 어록에 이르기까지, 스님 자신에게 등불이 되었던 불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가지곤 한다. 그 의문은 ‘살과 죽음’이라는 명

제에 대한 본질적 궁금증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실천적 궁금증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매우 철학적이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마치 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삶에 대한 수수께끼를 부처님의 법을 통해 하나씩 풀어준다.

책 속에 인용된 불조의 말씀들은 먼저 깨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깨달음’이란 한마디의 말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분명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올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마음인 것이다. 지현 스님은 율사로서 도덕적 실천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다. 올바른 가르침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출세간 구분 없이 모든 이에게 해당된다고 또한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참다운 수행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또 다른 수행자라고 여기는 저자는 ‘참다운 수행자가 많은 세상이 바로 ‘늘 기쁜 마을’ 인 것이다.”고 말한다.

박재원 기자

“길잡이 소가 길을 잘 잡아야”

그대에게 가는 길-하나, 둘

무원 스님 엮음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각 권 1만원



“소 떼가 강물을 건너갈 때 길잡이 소가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뒤따르는 소들이 물에 빠지나니 이는 길잡이 소가 길을 잘 못 선택한 때문이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대중에게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나니 지도자가 법답지 못하면 아래 사람들도 모두 법답지 못하게 된다.”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이 <아함경>의 구절들을 간추려 대중이 알기 쉽게 엮었다. 위는 <중일아함경> 중에 있는 말씀으로, 임금인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의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법문이다. 이와 같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등 각 사안별로 대중들에게 필요한 법문을 쉬운 설명을 곁들여 들려준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다.

무원 스님은 다문화 가족들에게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스님의 오랜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계층 간 민족 간의 다양성과 융합의 방안 등 일선에서의 이야기들도 책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저자는 “이제 세상은 다양한 요구로 사람들을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며 “사찰과 스님들의 역할에도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함의 말씀

을 간추린 이 책이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고 출간의 취지와 의미를 밝혔다.

책의 본문은 1권 불교적 주제와 2권 비불교적 주제로 나뉘었으며, 귀의·가족·집착·마음·생활·습기·업보·자비를 1권(하나)에서 다루고 있으며, 인생·인연·육망·간호·정치·경제·환경·다문화다종교·노사·인권을 2권에서 다루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사안에서 사회적인 대안으로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성세대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우리의 불교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다문화시대에 부합되도록 다문화다종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이 다른 도서들과 비교되는 점이다. 책 <그대에게 가는 길>은 초심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아함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붓다순례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인간 붓다의 위대한 발자취

철학, 역사, 문화를 종횡무진 오가며 신화에 가려진 인간 붓다의 참모습을 만나다

2012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 세계』의 저자이자 불교TV <숨겨진 사찰의 미(美)>의 명강사 지현 스님이 명쾌한 언어로 흥미롭게 풀어낸 ‘우리가 몰랐던 붓다와 불교 이야기’

글 지현 | 사진 하지권 | 352쪽 | 율리더 | 18,000원



지현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교무국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이사, 울산 영평선원 원장, 월정사 부산포교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된 『100개의 문답으로 풀어낸 사찰의 상징 세계』, 2012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불교미술사상사론』 등을 썼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붓다와 불교 이야기

- 붓다는 4월 8일에 탄신하신 게 아니다.
- 미아부인은 7일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 녹야원의 첫 설법 장소는 잘못된 것이다.
- ‘자등명 법등명’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 붓다의 탑은 살아 계셨을 때도 유행했다.
- 사라쌍수는 그물 침대를 매기 위한 것이다.
- 붓다의 열반일은 2월 15일이 아니다.

불교 전문 사진작가 하지권의 인도 성지 순례 사진 100여 장 수록!